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비즈니스 성공 요인은 '감성' ... 공감능력을 키워라

크리에이티브를 읽는 기술

무라타 치아키 지음·이정환 옮김

"도장에는 어느 쪽이 위쪽인지 표시된 것들이 많다. 표시가 있으면 알기 쉬우므로 편리하겠지만 본래 도장은 위를 알려주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형태라고 한다. 표시가 없으면 도장을 뒤집어보고 위 아래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장을 찍는 행위는 자신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장을 확인하는 잠깐의 시간은 자신의 의지를 굳히는 시간이 된다. 예로부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려는 의미에서 도장에는 위 아래를 알려주는 표시가 없는 것이다. 이는 도장이 인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다."(본문 중)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감성 사고'에 있다. 흔히 창조적이라는 뜻의 '크리에이티브'는 소수 몇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된다. 자신과는 동떨어진 것이여긴다. 그러면서 스스로 감성과 센스가 없음을 자책하며 창의적인 이들을 부러워한다.

'공감' 없이는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이가 있다. 공유형 컨소시엄 브랜드 METAPHYS와 (주)하츠실 헨디자인연구소 대표인 무라타 치아키가 바로 그다.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닌 그가 이번에 '크리에이티브를 읽는 기술'을 펴냈다.

'세상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킬 감성 사고법'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은 감성이 좌우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상대방이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 내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상대방이 화난 표정을 지으면 내 말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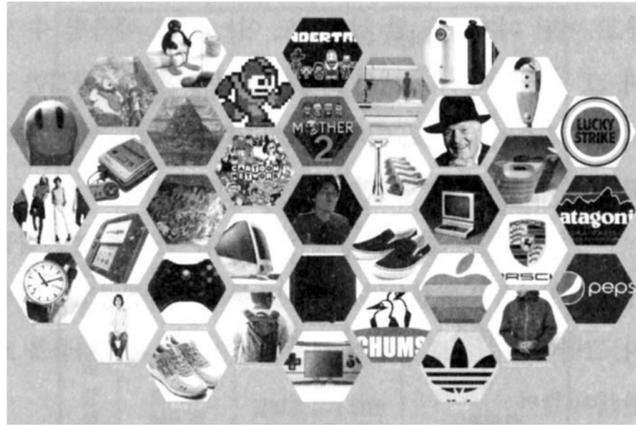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가 정의하는 감성적인 사람은 상황을 판단하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며 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의미가 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머릿속에 떠오른 감성을 행동으로 옮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머릿속에 그린 "상품, 패키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현실적으로 형태화"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감성이 전달됐으며 히트 상품으로 연계됐다.

감성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한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쉼 없이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성을 기를 수



공감하고 영향을 받는 요소를 한 장의 보드에 정리해 '페르소나 보드'를 만들어 보자. 자신의 감성을 가시화 하면 자기다움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강화된다.

<행복한 북클럽 제공>

있을까. 저자는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확 리는 훈련', '꼬리표를 붙여 기억에 남기 대하는 훈련', '머릿속에 있는 저장소를 늘 쉽게 하는 훈련', '판단력을 높이는 훈련'

등을 제시한다.

또한 공감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상의 접대이자 배려다.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의지를 배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지다.

"사람에게는 감성을 담당하는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클수록 미묘한 감성을 읽어낼 수 있다. 센서가 작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열심히 감성을 전해도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감성을 접하여 센서의 수신범위와 감도를 키워야 한다."

눈에 띄는 것은 공감 능력을 육각형 행사 콘 그래프로 분석하고 수치화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애매한 부분을 정성적으로 구조화했다. 감각, 창조, 기술, 개발, 문화, 배경 감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요인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감 능력과 직결돼 있다. <행복한 북클럽·1만 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는 나무를 만질 수 있을까

김숨 지음



김숨 작가하면 떠오르는 게 이상문학상(2015년) 수상 소설이다. 김 작가는 당나라 시인 이백의 '마부위침(磨斧爲針)' 고사를 언급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노인을 보고 이백이 공부에 정진하게 됐다는 얘기다. 그녀는 고사 속 노인의 믿음을 자신의 글을 쓰는 믿음으로 삼았다고 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결기는 무섭다. 김숨 작가의 소설 쓰기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 펴낸 '나는 나무를 만질 수 있을까'는 3편의 중단편 작품을 묶은 소설집이다. 책에는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 중편 '뿌리 이야기'를 비롯해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에 등단작 '느림에 대하여'를 개작한 '나는 나무를 만질 수 있을까', 1998년 문학동네신인상 당선작 '중세의 시간'을 개작한 '슬픈 여행'이 실려 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세계의 근간이 '뿌리 이야기'에 닿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뿌리'에 관한 소설이라는 점이다.

"살리고 싶어, 살려야지..... 혼잣말을 주문처럼 외며 초고 아닌 초고를 완성하고 낮을 때 세에 처음 쓴 소설이 '뿌리 이야기'와 닮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등단 후 내가 지금껏 쓴, 쓰고 있는 단편과 장편들이 어디에서 왔고, 오고 있는가 게도 같은 게 그려지는 것 또한 경험했다."(「작가의 말」에서)

'뿌리 이야기'에서 '그'는 자신을 정박하고자 뿌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심리가 있다. 또한 '그'와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가 등장한다. '나'는 어린 시절, 노년에 홀로돼 집으로 들어온 고모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뿌리 들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한 그것을 뽑은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된다.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름으로

해리스 지음



버지니아 울프 하면 '자기만의 방', '릴 웨이이 부인'이라는 작품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장르를 완성한 작가가 바로 버지니아 울프였다. 20세기 영국 모더니즘의 대표 작가였던 그녀는 평생 정신적학과 우울증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다.

버지니아 울프의 삶과 사랑, 우정, 작품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버밍엄대학교 영문학 교수인 알렉산드라 해리스가 펴낸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름으로'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그녀의 일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본다.

책에는 버지니아 울프의 어린 시절부터 말년까지의 삶이 담겨 있다. 저자는 그녀의 일생을 '결단하고 분투하는 삶,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관심으로 점철된 삶'으로 평가한다. 평생 글을 쓰고 작품을 펴냈던 작가의 의지와 용기, 삶에 대한 애착에 초점을 맞췄다.

버지니아 울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이었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학자였던 아버지와 교육열 높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10~20대에 부모와 언니, 동생의 죽음을 겪으면서 정신질환에 시달린다. 그 상황을 버티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글쓰기였다.

그녀는 로저 프라이, 던컨 그랜트, 존 케인스, 레너드 울프 등 '블룸즈버리' 그룹으로 알려진 멤버들과 교류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버지니아 울프는 소설, 에세이, 비평, 전기 등 다수의 작품을 펴내며 다른 삶을 모색했다. 저자는 책의 '후기'에서 울프의 연구에 대해 기존의 우울한 환자의 이미지 대신 '투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평양전쟁

유진 B. 슬레지 지음



태평양 전쟁의 격전지 펠렐리우섬과 오키나와섬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를 기록한 '태평양 전쟁'(1981)이 출간됐다.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부터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까지 동남아시아·태평양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진 일본군과 연합군 간의 전쟁이다.

책은 펠렐리우 전투(1944)와 오키나와 전투(1945)를 다루고 있다. 두 전투에 미군 해병대 병사로 참전했던 저자 유진 B. 슬레지는 이 책을 통해 아열대 섬의 진장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혹하고 야만적인 실상을 담아냈다. 이 책은 미국 케이블 방송에 이치비오(HBO)의 미니시리즈 '퍼시픽'의 원작이기도 하다.

저자는 태평양 전쟁에서 박격포병(제1해병사단 5연대 3대대 K중대)으로 참전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소수의 해병대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입대 전까지만 해도 전투현장에 투입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릴까 봐 조바심을 내던 패기만만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펠렐리우 상륙 작전 첫날 빗발치는 총탄과 포성의 쇳소리와 함께 전쟁에 대한 환상은 무참히 깨지고 만다. 저자는 당시 전투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내용을 성경책 여백에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고, 36년 전 기록했던 메모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다.

책에는 저자의 눈에 비친 전쟁의 참상과 죽음의 문턱에서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오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묘사돼 있다. '죽음의 냄새는 내 코 안에 늘 가득 차 있었다', '어쩌면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전쟁은 그 자체로 미친 짓이다' 등 책에 등장하는 독백과도 같은 문장들은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열린책들·2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무엇이 여자를 침묵하게 만드는가

해리엇 지음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아무리 말해 봤자 듣지를 않아.'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과 행복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더라도 대화는 어긋나고 관계는 삐걱거리기 십상이다.

'무엇이 여자를 침묵하게 만드는가'는 대화가 막히거나 관계가 악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다. 또 관계의 늪에서 벗어나 나를 발견하는 동시에 성장시키는 길을 안내한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인 저자 해리엇 러너는 배우자, 연인, 부모, 친구 등 상대방과 유지하는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거나 교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내 목소리 찾기'다. 저자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 욕구와 신념, 가치와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행복한 관계를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대화와 관계의 장으로 나아가는 법을 알려준다.

'나를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 '진정한 목소리를 찾는다는 것의 의미', '감정의 파도를 극복하는 법', '기존의 습관과 틀에서 벗어나는 법',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본노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등을 통해 어려운 관계의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타인에게 이해받고 타인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한다.

<부키·2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